

수천억 매출에도 망·세금 부담 '0원'... 불공정 경쟁 재점화

‘글로벌 빅테크’ 국감 도마 위

구글·넷플릭스, 망 무임승차 논란
애플, 세금 해외이전 논란 불붙어
콘텐츠 독점 계약, 시장 왜곡 지적
지도 반출 요구에 안보 우려 재부상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핵심 증인으로 소환되며 이들의 국내 사업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며 시장을 지배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회는 ‘망 무임승차’, ‘콘텐츠 독점’, ‘지도 데이터 반출’, ‘조세 회피’ 등 산적한 현안을 두고 날카로운 질의를 예고했다.

10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국감 기간인 13일부터 30일까지 총 18일 동안 증인 92명, 참고인 42명을 채택했다. 이 가운데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관계자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구글·넷플릭스, ‘망 무임승차’에 역차



ChatGPT로 생성한 올해 국정감사에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에 휩싸인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이미지.

별 비판 고조

가장 큰 쟁점은 단연 ‘망 무임승차’ 문제다. 구글(트래픽 점유율 31%)과 넷플릭스(5%)는 국내 트래픽 발생량 최상위권을 차지하면서도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고 있다. 이는 매출의 일정 비율을 망 사용료로 내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과의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국내 기업과 비슷한 기준으로 망 사용

료를 냈다면 지난해 최대 3479억원을 부담했어야 한다고 추산했다. 통신업계는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트래픽이 전체의 70%에 달하는데, 망 투자비는 모두 국내 통신사가 부담하는 불균형 구조”라며 이대로 가다간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가 불 보듯 뻔하다고 경고했다.

이에 구글은 사용자가 이미 접속료를 내고 있어 이중과금이며,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넷플릭스는 ‘콘텐츠 독점’... 소비자 기만 행위도 쟁점

넷플릭스는 국내 콘텐츠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남용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국회는 레지널드 손 톰슨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대표와 강동한 콘텐츠 총괄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특정 작품의 독점 공급 계약 방식과 이로 인한 소비자 기만 행위 가능성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제작사에 대한 불공정 계약 관행과 수익 배분 문제 역시 과거 국감에서부터 꾸준히 제기된 문제다.

◆안보 위협하는 구글의 ‘지도 반출’ 시도

구글이 18년째 요구하고 있는 1: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문제도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구글은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해당 데이터가 구글의 위성 이미지와 결합될 경우 군부대 등 국가 안보 시설이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반출 조건으로 내건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를 구글이 계속 거부하고 있어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여

기에 더해 최근 ‘독도박물관’이 사용자의 수정 제안으로 ‘김일성기념관’으로 잘못 표기됐던 사례는, 구글이 정밀 지도를 확보하더라도 정보의 정확성과 공신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

◆막대한 수익에도 쥐꼬리 세금... ‘조세 회피’ 의혹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법인세는 미미한 수준으로 납부하는 ‘조세 회피’ 의혹도 주요 검증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네이버보다 6배 이상 많은 트래픽을 점유하고도 법인세는 172억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내 매출 상당 부분을 세율이 낮은 해외 법인으로 라이선스, 로열티 등의 명목으로 이전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넷플릭스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를 토대로 글로벌 기업에 대한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바이오 따로 키운다’... 삼양·삼성, 차세대 성장동력 시동

바이오 전담 신설 법인 출범 CDMO·시밀러 분리해 효율성 강화 기술 독립 앞세워 글로벌 경쟁 대응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바이오 사업 강화를 위해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삼양그룹과 삼성그룹은 각각 바이오 전담 신설 법인을 출범시키며 K제약·바이오 산업의 전문화를 본격화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을 겨냥한 이번 조치는 장기적인 성장동력 확보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13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삼양그룹이 그룹 핵심 사업인 바이

오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한다. 삼양그룹 지주회사 삼양홀딩스는 14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을 다룬다. 삼양홀딩스는 의약바이오 사업 부문을 단순 인적분할해 ‘삼양바이오팜’을 신설한다.

분할 이후 지주회사 삼양홀딩스는 임태웅 대표가 이끌며 지주회사 역할만 담당한다. 분할 신설회사 삼양바이오팜은 김경진 대표 체제로 이뤄진다. 김경진 대표는 지난해 삼양그룹에 합류해 바이오 팜그룹장 등을 지낸 바이오 전문가다. 삼양바이오팜은 바이오의약품 위탁

개발생산(CDMO) 사업, 차세대 기술인 mRNA 전달체 연구개발 등을 핵심 성장 축으로 삼는다.

실제로 유전자 전달체 ‘SENS’를 자체 개발했고 이를 응용한 신약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항암제를 중심으로 의약품 시장에서 기업 입지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고형암 7종, 혈액암 5종의 항암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포트폴리오 확대뿐 아니라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생산이 어려운 항암제를 자체 기술로 국산화하는 것이 목표다.

기존 주력 사업인 수술용 봉합사 사업에서도 속도를 낸다. 지난 1993년 국내

최초로 생분해성 수술용 봉합사 개발에 성공한 후 현재 약 45개국 190개 이상의 기업에 원사를 공급한다. 원사 공급량 기준으로 글로벌 봉합원사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는 17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의결사항은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이다.

이날 최종 결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삼성에피소를 신규 설립하게 된다.

향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을 맡

고, 삼성에피소홀딩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포함한 자회사 등을 관리하고 신규 투자를 추진한다. 기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삼성에피소홀딩스 자회사로 100% 편입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5월 이러한 인적분할 계획을 밝혀 왔다. 서로 다른 성격의 사업을 분리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다.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과 수주 계약을 맺으며 의약품 생산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사업과 고객사와 경쟁 의약품 개발하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업의 이해가 충돌하는 것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위탁개발생산(CDMO)을 넘어 임상시험수탁(CRO) 서비스까지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국민 곁에서 따뜻함을 전하는

에너지 파수꾼, 한국가스공사

KOGAS, The Leader of Energy Innovation

